

서노송예술촌에 놀라운 예술터 조성

전주시, 연말까지 12억원 투입 창작활동·전시 공간 문화 카페 등 갖춘 예술협업 창작지원센터 개관 예정

성매매집결지에서 문화예술공간으로 변신한 서노송예술촌에 '뜻밖의 미술관'에 이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돕는 '놀라운 예술터'가 들어선다.

전주시는 올 연말까지 국비 6억 원 등 총사업비 12억 원을 들여 서노송예술촌 내 5층 건물(압산구 권삼득로 63-1)을 리모델링해 예술협업 창작지원센터인 '놀라운 예술터'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놀라운 예술터'는 예술인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협업 프로젝트 공간이다. 명칭은 성매매집결지라는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나 문화예술 공간으로 빛나게 변신한 것에 대한 '놀라움'과 '예술문화의 꽃을 피우는 터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했다.

이곳에는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창작활동 공간 ▲전시 공간 ▲문화 카페 ▲회의실 ▲강의실이 갖춰질 예정이다.

또, 창작활동에 필요한 제반 장비들도 비치된다.

시는 현재 진행중인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한 뒤, 장비 및 기자재 구입, 조례 개정, 민간 위탁기관 선정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2월 중 이곳을 개관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향후 이곳에서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는 등 인근에 위치한 '뜻밖의

미술관'과 연계해 서노송예술촌의 문화거점으로 만들 방침이다.

서노송 예술촌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놀라운 예술터’와 ‘뜻밖의 미술관’은 예술인들의 자립기반을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양질의 문화향유 서비스를 제공해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이라며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과 전시 및 체험, 활성화 이벤트 등을 발굴해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키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문을 연 서노송예술촌 '뜻밖의 미술관'에서는 그간 인권을 주제로 한 '오감연대' 전시회와 서노송동의 역사를 주민들과 함께 그려낸 '노송도팔연폭(老松圖八連幅) 전(展)', 텃밭·정원과 관련된 전시인 '미술관에 피는 꽃' 등 운영했으며, 현재 마을서점 연계 기획전시와 마을극단 공연 등이 계획돼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지원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혜선, 이하 전주시 꿈드림)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지킴이가 돼주고 있다.

전주시 꿈드림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각종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무료 건강검진 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전주시 꿈드림은 다음 달을 건강검진 집중 신청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이상지질혈증, C형 간염, 매독 등

질환 의심 판정자는 무료로 추가검사를 지원해 주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한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주기로 했다.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동행 수검 서비스도 지원된다.

이와 함께 전주시 꿈드림은 고3 연령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6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접수 및 사전예약을 돕기도 했다.

정혜선 센터장은 "10대 특성에 적합

한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력 및 직업교육훈련,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전액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jisangdam.or.kr)를 참고하거나 전화(063-227-1005)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어린이집 원아 대상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

저출생·인구절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유아

기 때부터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17일 덕진동 소재 하가맨젤 어린이집 원아 4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인구교육은 날로 약해져가는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공동체에 대한 가치관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에서 아이들은 빛과 모래를 이용해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며 영상과 이야기를 표현해보는 샌드아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형제자매의 중요성에 대해 일깨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시는 어린이집 원아 500여 명을 비롯해 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과 야호학교 방과후아카데미,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영화영상 산업 적극 지원으로 활력

올해 전주 지역 비롯한 전북도 일원서 총 70편 영화·영상물 촬영 이뤄져

코로나19 속에서도 전주시의 영화영상 지원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전주영상위원회(위원장 박홍식)는 올해 전주를 비롯한 전라북도 일원에서 장편영화 12편, 드라마 26편, 기타 영상물 32편 등 총 70편의 영화·영상물 촬영이 이뤄졌다고 17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시리즈인 '킹덤 : 아신외전'과 남원을 배경으로 한 '지리산', 인기 주말 드라마인 '오케이 광자매' 등이 방영을 했거나 개봉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윤종빈 감독, 하정우·황정민 출연의 '수리남'과 정병길 감독, 이성재 주연의 '카터' 등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작품들도 전주를 포함해 전북 전역에서 촬영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기생충' 촬영장소로 눈길을 끌었던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의 경우 '노랑', '크리스마스 선물', '수리남', '한트' 등의 작품을 유치해 현재까지 총 633일간 촬영이 가동됐다. 향후 '김복순', '택배기사' 등의 촬영이 이어질 예정으로, 촬영 문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영화영상 산업에 대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 시는 영화 영상산업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영화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장편극영화 시나리오 기획·개발 멘토링 ▲주제 특강 ▲영화연출 수업 등으로 구성된 '전주영화화교'를 7인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4개월 과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편극영화 시나리오 기획·개발 멘토링 수업에는 '해치지 않아', '달걀 살벌한 연인'을 연출한 손재곤 감독과 '아저씨', '비행: 사라진 여자'를 제작한 김성우 피디, '삼진그림 영어토익반'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이종필 감독이 멘토로 참여해 교육생들의 장편영화 시나리오 작성을 돕고 있다. 주제 특강의 경우 박인영 영화음악감독과 최태영 사운드슈퍼바이저, 권윤경 디칼러리스트 등으로부터 장편영화 제작을 위

한 현장의 노하우를 직접 듣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영화연출 수업에는 봉준호 감독이 차세대 거장으로 선정된 윤가은 감독과 '우리집', '우리들'의 제작, 촬영, 미술, 편집을 맡은 키스탑들이 지난해에 이어 참여하기도 했다.

이밖에 ▲전주단편영화 제작지원(6편) ▲전주영화 마케팅 지원(9편) ▲지역 배우 발굴 및 DB 구축 ▲전북영화 제작인력 인턴십 지원 ▲전북영화 기획개발 지원 등의 사업도 추진됐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저소득층에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등 4만4000여명에 1인당 10만원씩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전주시는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시민 4만 4000여 명에게 10만 원씩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추가 국민지원금은 정부가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기로 한 국민생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등이다. 매월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

급자, 차상위장애인, 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 가족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급여계좌로 오는 24일 지급된다.

현금급여를 받고 있지 않아 계좌정보가 없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자활·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오는 20일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 15일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전주시청 생활복지과, 완산·덕진구청 생활복지과, 주소지 동 주민센터 등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